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는 구강진료 전문가들의 직무만족 현황

박미정¹, 박태준¹, 신지아², 조민정¹, 김은경³, 송근배¹, 최연희¹

¹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과학교실, ²현풍맥치과의원, ³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치위생학과

Job satisfaction level of dental staff at oral health centers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Mi-Jung Park¹, Taejun Park¹, Ji-A Shin², Min-Jeong Cho¹, Eun-Kyong Kim³, Keun-Bae Song¹, Youn-Hee Choi¹

¹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²Hyeonpung Mac Dental Clinic, Daegu, ³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Korea

Received: August 17, 2018

Revised: February 21, 2019

Accepted: March 14, 2019

Corresponding Author: Youn-Hee Choi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177 Dalgubeol-daero, Jung-
gu, Daegu 41940, Korea
Tel: +82-53-660-6871
Fax: +82-53-423-2947
E-mail: cyh1001@knu.ac.kr
https://orcid.org/0000-0001-5712-8097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job satisfaction level of the dental staff working at oral health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Method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73 dentists and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seven regional oral health centers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and dental hospita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eoul.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seven questions across two subscales: general satisfaction (4 questions) and satisfaction with wage and welfare (3 questions).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e questionnaire items was assessed using Cronbach's alpha (0.80). The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a t-test with SPSS (version 23.0).

Results: Of the 73 dental staff members, 50% were dentists, 64% were women, and participants' average age was 30 years. In total, 58% of the participants had up to five years of experience working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42% of them worked full-time, and each participant treated an average of 200 patients with disabilities per month.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ir salary was relatively low. Dental hygienists had higher satisfaction level than dentists in the institution's welfare work. The more full-time workers answered, the more suitable they are for their work.

Conclusions: The job satisfaction level of most professionals working in oral health cente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not very high but they felt rewarded by their welfare work. It was inferred that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improve institutional support aspects such as human resource support. Increasing the number of centers in the central region is also needed.

Key Words: Dentist, Dental hygienist, Job satisfaction, Oral health center, People with disabilities

서론

치과계에서도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¹⁻³⁾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구강진료 전문가들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기 위하

여 노력하고, 이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직무만족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

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유지와 예방을 위한 활동기회가 적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인에 비해 더 복잡하고 긴 치료시간을 요하고, 견고한 의료장비나 보조기구를 필요로 한다^{5,6)}. 또 그만큼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과 진료 집중도도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1,645,555명, 2012년 2,511,226명에서 2015년 2,494,460명으로 10년 동안 약 85만 명이 증가하고 매년 증가되고 있다^{7,8)}. 이러한 장애인수의 증가 및 복지확대에 따라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9,10)} 장애인 복지에 관한 요구들 가운데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¹¹⁾. 특히 구강건강은 저작, 발음, 심미 기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의 삶의 질 증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⁷⁾.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치과진료기관 중에서 공공부분으로는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실, 특수학교 구강보건실(2013년 기준 274개소), 자체적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광주, 충남, 부산, 전북, 경기, 대구, 인천, 강원, 제주 총 9개소), 민간부분으로는 스마일재단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진료치과네트워크가 유일하다⁴⁾. 주요 질병관리체계를 공공부분에서 잘 확립한 국가일수록 의료 선진국이라 할 수 있으나¹²⁾,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예방부터 사후 관리 체계까지 안전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¹³⁾.

공공시설 중심으로 행해지던 의학적 치료들이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과분야에서도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¹⁴⁾. 또한 장애인은 구강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치료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응급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기능과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¹⁵⁾.

서울시장래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진료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경영노하우 전수를 위하여 2008년 4월 장애인 진료 수탁운영을 시작해 당시 14대에 불과했던 유니트체가 현재는 2배인 28대로 증가하고, 직원수도 2배 이상 증가, 연환자수 또한 12,958명에서 22,466명으로 70% 이상 증가하여 일평균 90명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성장하고, 전신마취 건수 5배 증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계획 최우수 기관 다수 선정, 서울특별시립병원평가 우수기관 다수 선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¹⁶⁾. 이처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근무하는 구강진료 전문가에 대한 현황이나 실태와 관련된 조사는 매우 제한적이며, 구강보건의료의 공급자 입장에서 구강진료 전문가의 직무 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그리 많지 않다.

직무만족이란 한 개인의 직업이나 직무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말하고¹⁷⁻¹⁹⁾, 이것은 조직구성원 개인의 행위나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¹⁸⁾. 그리고 전문직은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이론적

이고 체계적인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 독특한 직업조직, 직업윤리, 직업문화를 형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봉사지향적인 직업으로 일반 직업에 비해 고도의 직업적 자율성을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20,21)}. 구강 진료전문가인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는 전통적으로 집단 특유의 직업의식을 발전시켜 왔고,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분류되고 있다¹⁸⁾.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강진료 전문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와 관련된 만족 수준을 조사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체계적인 인력 양성 등의 기초 자료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주 권역을 제외한 광주, 경기, 대구, 부산, 인천, 전북, 충남,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서울시장래인치과병원의 총 9곳에 근무하는 전체 구강진료 전문가가 73명을 대상으로 직접대면 및 자기기입식 방법을 병용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 승인(KNU 2018-0105)을 얻었다.

2. 연구방법

주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래인치과병원에 근무하는 구강진료 전문가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직무만족 현황 조사의 설문내용은 총 7문항으로 전반적인 만족도 4문항, 급여·복지에 관한 만족도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여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의 1점으로 총 점수는 35점 만점에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고, 문항별 만족 수준 점수 비교 시에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를 '만족한다'의 3점,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를 '만족하지 않는다'의 1점으로 재분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개발한 직무만족도 조사 설문지 문항설계²¹⁾를 참고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완성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변수 중 '월 진료 장애인 환자 수'는 중앙값을 이용하여 80명 이하와 80명 초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설문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평가하는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80이었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각각 0.83, 0.80으로 나타났다(Table 1).

3. 통계분석

수합된 모든 자료는 통계분석용 소프트웨어인 IBM SPSS Statistics 23.0 (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만족도간의 정규성이 확인되어 모수적 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문항의 특성에 따라 문항내적일치관성 신뢰도(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하였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Table 1. Result of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Questions			Cronbach's α		
			Each	Sub-factor	Total
General satisfaction level	Q1.	I am satisfied with my profession.	0.76	0.83	0.80
	Q2.	My profession is suitable for my ability.	0.78		
	Q3.	My profession is important to others.	0.78		
	Q4.	My profession is appropriate for my aptitude.	0.75		
Wage and welfare satisfaction level	Q5.	There are adequate training opportunities supporting my profession.	0.77	0.80	
	Q6.	The salary I receive is appropriate in light of my work level.	0.77		
	Q7.	I am pleased with the welfare benefits of my institution.	0.78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	Mean \pm SD	t	P-value
Gender	Male	18 (24.7)	23.88 \pm 4.08	0.08	0.93
	Female	47 (64.4)	23.79 \pm 3.99		
	Non-response	8 (10.9)			
Type of occupation	Dentist	37 (50.7)	23.33 \pm 3.70	-1.09	0.28
	Dental hygienist	28 (38.4)	24.43 \pm 4.31		
	Non-response	8 (10.9)			
Age (yrs)	20-39	50 (68.5)	23.72 \pm 4.26	-0.54	0.60
	40-59	13 (17.8)	24.41 \pm 2.94		
	Non-response	10 (13.7)			
Clinical work experience	\leq 5 yrs	31 (42.5)	24.61 \pm 4.62	1.65	0.11
	> 5 yrs	32 (43.8)	22.97 \pm 3.11		
	Non-response	10 (13.7)			
Clinical work experience for disabled	\leq 5 yrs	43 (58.9)	24.12 \pm 4.39	1.46	0.15
	> 5 yrs	18 (24.7)	22.78 \pm 2.67		
	Non-response	12 (16.4)			
Center dedicated status	Full-time	31 (42.5)	24.23 \pm 4.48	1.15	0.26
	Part-time	24 (32.9)	22.96 \pm 3.27		
	Non-response	18 (24.7)			
Average number of disabled patients per month	\leq 80	26 (35.6)	23.85 \pm 3.94	0.17	0.87
	> 80	33 (45.2)	23.67 \pm 4.14		
	Non-response	14 (19.2)			
Total		73 (100.0)			

* $P < 0.05$ (determined by t-test).

Seven questions on the 5-likert scale of satisfaction.

특성, 직무만족 수준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과 만족 수준 총점 간에 차이, 그리고 각 문항별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판단을 위한 유의수준(α)은 0.05로 설정하였다.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만족 현황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 분포는 다음과 같다(Table 2). 전체 만족도 35점 만점에 평균 만족도 점수는 23.89 \pm 4.00점이었고, 문항 평균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에 3.41 \pm 0.57점이었다. 성별구성은 남자 18명(24.7%), 여자 47명(64.4%), 연령 범위는 만 22-55세이었고, 평균 연령은 33.00 \pm 8.32세로 확인되었다. 직종은 치과의사 37명(50.7%), 치과위생사 28명(38.4%),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of the study participants

		Satisfaction	Moderate	Dissatisfaction
		N (%)	N (%)	N (%)
General satisfaction level	Q1	57 (78.1)	13 (17.8)	3 (4.1)
	Q2	44 (60.3)	23 (31.5)	6 (8.2)
	Q3	41 (56.2)	24 (32.9)	8 (11)
	Q4	45 (61.6)	22 (30.1)	6 (8.2)
Wage and welfare satisfaction level	Q5	22 (30.1)	31 (42.5)	20 (27.4)
	Q6	16 (21.9)	30 (41.1)	27 (37.0)
	Q7	21 (28.8)	37 (50.7)	15 (20.5)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each question

Charac- teristics	Q1		Q2		Q3		Q4		Q5		Q6		Q7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Mean±SD	P-value
Gender														
Male	2.80±0.44		2.56±0.61		2.48±0.61		2.58±0.61		2.01±0.75		1.86±0.75		2.08±0.69	
Female	2.89±0.70	0.33	2.61±0.70	0.68	2.39±0.70	0.48	2.44±0.70	0.29	2.06±0.87	0.79	1.94±0.75	0.61	2.11±0.76	0.80
	2.54±0.58		2.54±0.58		2.52±0.65		2.63±0.57		2.00±0.71		1.83±0.75		2.06±0.6	
Type of occupation														
Dentist	2.54±0.65	0.87	2.54±0.65	0.77	2.51±0.65	0.69	2.51±0.65	0.35	1.89±0.70	0.14	1.89±0.67	0.75	1.92±0.68	0.04*
DH	2.59±0.57		2.59±0.57		2.44±0.69		2.66±0.55		2.17±0.80		1.83±0.85		2.28±0.65	
Age														
20-39	2.54±0.65	0.45	2.54±0.65	0.63	2.44±0.70	0.33	2.50±0.65	0.03*	2.04±0.81	0.58	1.82±0.75	0.42	2.10±0.74	0.55
40-59	2.63±0.50		2.63±0.50		2.63±0.50		2.81±0.40		1.94±0.57		2.00±0.76		2.00±0.52	
Clinical work experience														
≤5 yrs	2.65±0.55	0.62	2.65±0.55	0.29	2.48±0.68	0.99	2.58±0.56	0.95	2.16±0.86	0.15	2.06±0.73	0.04*	2.16±0.78	0.35
>5 yrs	2.49±0.66		2.49±0.66		2.49±0.66		2.57±0.65		1.89±0.63		1.68±0.73		2.00±0.59	
Clinical work experience for disabled														
≤5 yrs	2.63±0.62	0.78	2.63±0.62	0.22	2.35±0.72	0.01*	5.56±0.63	0.75	2.09±0.84	0.20	1.95±0.72	0.17	2.09±0.75	0.76
>5 yrs	2.43±0.59		2.43±0.59		2.74±0.45		2.61±0.58		1.87±0.55		1.68±0.78		2.04±0.56	
Center dedicated status														
Full-time	2.52±0.63	0.50	2.52±0.63	0.79	2.68±0.60	0.12	2.71±0.53	0.03*	2.13±0.81	0.16	1.81±0.83	0.87	2.10±0.70	0.35
Part-time	2.56±0.58		2.56±0.58		2.40±0.71		2.36±0.64		1.84±0.69		1.84±0.69		1.92±0.70	
Average number of disabled patients per month														
≤80	2.62±0.57	0.52	2.62±0.57	0.56	2.46±0.65	0.82	2.54±0.58	0.69	1.88±0.71	0.26	2.00±0.63	0.23	2.00±0.69	0.47
>80	2.53±0.64		2.53±0.64		2.50±0.68		2.60±0.63		2.10±0.78		1.77±0.81		2.13±0.69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5$) by t-test.
DH, dental hygienist.

진료경력은 평균 8.80 ± 7.94 년, 장애인 진료경력은 평균 4.20 ± 4.02 년이었다. 그리고 월 평균 근무지에서 진료를 보는 장애인 환자 수는 평균 200.70 ± 216.11 명이었고 이들 중 상근직(full-time)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31명(42.5%), 비상근직(part-time)으로 있는 근무자는 24명(32.9%)이었다. 또한 성별, 직업군, 연령대, 근무경력, 센터전담여부, 월 장애인환자수에 따른 직무만족 총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2. 문항별 직무만족 현황

직무만족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Q1.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7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Q4.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적성에 맞는다'는 질문에 61.6%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Q2.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능력에 적당하다.'는 질문에 60.3%가, 'Q3. 나의 현 직무를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다'의 질문에는 56.2%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Q5. 나 자신이 성장하는데 우리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30.1%), 'Q7. 우리 기관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만족한다'(28.8%)는 문항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Q6. 내가 받는 급여는 나의 업무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다'고 묻는 문항에는 아니다(37.0%)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다(21.9%)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다.

3. 구강진료 전문가의 문항별 직무만족 현황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문항을 비교해 보았다(Table 4). 'Q1.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 'Q2.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능력에 적당하다.'는 질문에 전반적인 만족 점수는 높았으나, 일반적인 특성간의 차이는 없었고($P > 0.05$), 'Q3. 나의 현 직무를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질문에 장애인진료경력 5년 이하(2.35)보다 5년 초과(2.74)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의 만족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 0.05$). 'Q4. 현재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나의 적성에 맞는다'는 질문에 연령대 20-30대(2.50)보다 40-50대(2.81)일수록, 그리고 비상근직 근무자(2.36) 보다 상근직 근무자(2.71) 일수록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Q5. 나 자신이 성장하는데 우리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질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P > 0.05$), 'Q6. 내가 받는 급여는 나의 업무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적당하다'는 질문에 진료경력이 5년 이하 2.06, 5년 초과 1.68로 5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그룹이 만족 수준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5$). 그리고 'Q7. 우리 기관의 복리후생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질문에는 치과 의사는 1.92, 치과위생사는 2.28로 나타나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고 안

이 연구는 서울시장에인치과병원과 제주 지역을 제외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근무하는 구강진료전문가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들의 직무만족현황을 분석했다.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문항은 일반적인 직무만족 수준과 급여·복지에 대한 만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종합적인 직무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에 비해 다소 문항수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는 구강진료 전문가들의 직무에 관한 만족 수준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더불어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체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 현황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주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9개소의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근무하는 구강진료 전문가 73명을 조사하였는데, 이들 중 2/3정도가 여성이고, 치과의사가 50%, 30대가 주연령층이었다. 5년 이하의 진료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약 60%정도였고, 전문가 1인 당 한달 평균 200여명의 장애인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센터전담인 경우가 42%정도, 치과의사 이외의 구강진료 전문가는 치과위생사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강진료 전문가들의 특성에 따른 각 문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직무만족을 묻는 문항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고, 급여·복지에 대한 만족 수준을 묻는 문항은 만족의 응답보다 보통 또는 불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 응답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고, 장애인 진료 경력이 5년 초과 일수록 업무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40-50대의 상근직 근무자일수록 업무가 적성에 맞다고 응답했다. 이는 경력이 많고 상근직인 경우 센터관련 사업에 대한 집중도와 순응도가 높아서 비상근직 보다 만족 수준이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²²⁻²⁴). 하지만 진료경력이 5년 초과인 그룹에서는 급여에 대한 만족 수준이 다소 낮았는데 이는 축적된 경험을 통해 업무능력이 더 발휘되는데 반해 전담 인력이 부족하면 진료해야 하는 환자수가 많아지고, 이로 인해 업무량이 과다해지면서 만족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치과의사보다 치과위생사가 기관의 복리후생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이들은 대체로 본인의 급여에 대한 만족 수준은 비교적 낮다고 응답하였으나, 센터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Kim과 Lee²⁵⁾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조직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 지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에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수준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역시 의료기관이라는 맥락에서 보건데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사제도와 탄력근무, 교육훈련의 제공 등을 통한 기관 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하고 더불어 장애인 치과진료의 난이도를 생각할 때 치과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관련 술식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구강진료 전문가들의 인식변화도 요구된다^{26,27)}.

이번 조사 결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근무하는 구강진료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볼 수 있었고,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현주소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운영활성화 평가, 치과진료 서비스 및 구강보건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설문지 배포되었고, 전수조사라는 의미는 갖지만 조사대상자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하여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나타내 주지는 못하였다. 둘째 치과의사의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진료의 수급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문항수로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을 검토한 바, 그 밖의 요인에 의한 추가적인 비교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하지만 우리나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확대²⁸⁾되고 있는 시점에서 종사자들의 현황과 이들의 직무만족 수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특성과 직무만족도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를 중심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는 구강진료전문가들의 직무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 문항의 개발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결론

이 연구는 장애인구강진료를 전담하는 센터 종사자들의 직무현황과 직무만족 관련 요인을 조사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추가 설치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행하였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종사하는 구강진료 전문가들의 장애인진료경력력은 평균 4.2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치과의사가 50%, 여성이 65%를 차지하였으며 이들 중 40% 이상이 상근직이었다. 전문가 1인 당 한달 평균 200여명의 장애인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직무만족 수준은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급여·복지에 대한 만족 수준은 보통 또는 불만족이었다. 그리고 근무형태가 상근직이고 40-50대 일수록 본인의 업무가 적성에 맞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장애인진료경력력이 5년 초과로 많아질수록 현직무를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로써 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만한 복리후생 증진 방안을 검토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운영에 있어 전문성 확보 등 인력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References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status of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s in disabled peopl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2003:1-136.
2. Park YO. Analysis of real condition of unmet dental care needs for the disabled using Korea health panel survey data [master's thesis]. Kyungju: Uiduk University;2015. [Korean].
3. Jin HJ. Survey of unmet dental treatment needs among adult disabled. J Korea Acad Industr Coop Soc 2015;16:7501-7507.
4. Article 2 of the Rehabilitation law for the disabled [Internet]. [cited 2018 June 04].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W/main.html>.
5. Kim SM. Dental care and the st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dentists for the handicapped. J Korean Acad Pediatr Dent 2001;28:87-94.
6. Kim YJ, Kim YT, Shin TJ, Jung MS, Jo HJ, Jo HR. The intra oral world of living together-The promotion of oral health for the disabled. Sejong: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7:1-114.
7. Ministry of Health & Welfar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oral health center adoption system for the disabled and of criteria for severe disability for dental treatment. Daegu:Kyungpook National University;2017:1-204.
8. Ministry of Health & Welfar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registration and judgement system for the disabled. Osan:Hansin University;2012:1-297.
9. Lee HS, Kim HJ, Nam SH, Kim MS, You HS, Baek SH. The mobile oral health survey of the disabled in facilities in Seoul. J Korean Dis Oral Health 2012;8:1-9.
10. Lee JH, Hwang HG, Han SY. A study on DMFT Index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JMAHS 2016;6:53-67.
11. Shin DK, Jeong SH, Park JH, Choi YH, Song KB. Public health dentistry: A study of oral health status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disabled people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7;31:248-262.
12. Park BJ. Current status of public health in Korea. Korean Public Health Res 2017;43:123-134.
13. Oh YH. Problem with and policy agenda for public health services in Korea.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200:62-82.
14. Hong SS, Jeong SH, Kim HY, Choi YH, Song KB.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between dental hygienist and assistant nurses in Daegu,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5;29:172-183.
15. Jeon HS, Kim YN, Choi YH, Chung WG, Kim BI, Lee KH, et al. Utilization of dental service and oral hygiene behavior in Korean disabled adul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7;31:73-82.
16. Medical World News [Internet]. Seoul disabled dental hospital 10 years 70% more patients, 5 times more general anesthesia; [cited 2018 June 08]. Available from: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5249>.
17. Kalleberg AL. Work values and job reward: A theory of job satisfaction. Am Sociol Rev 1977;42:124-143.
18. Jeong SH, Ahn SH, Hong SS, Choi YH, Song KB.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of dental resident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3;27:447-458.
19. Jang BJ, Hong SS, Kim JY, Jeong SH, Song KB. Job satisfaction of the nurse aides engaged in the private dental clinic. J Korean Dent Assoc 2004;42:717-725.
20. Jeong SH, Chung JK, Kwon HK, Song KB. Analysis of job satisfaction among dentists in Korea. J Korean Acad Oral Health 2005;29:67-79.
21. Jeong BK. Uriwon employee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survey questionnaire design. Seoul: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2015:1-22.
22. Kim HC, Kim YT, Park YS, Lee IP, Hwang SG.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job rotation system-focusing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a general hospital. J Korean Soc Radiol Imaging Technol 2016;13:99-115.
23. Lee JH, Shin IH. A study of emergency department personnels job satisfaction. J Korean Soc Qual Assur Health Care 2002;9:148-163.
24. Jung JW. Monthly labor review. 140th ed. Sejong:Korea Labor Institute;2016:83-97.
25. Kim SH, Lee MA. Effects of emotional labor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turnover intention in nurses. J Korean Acad Nurs Adm 2014;20:332-341.
26. Yoon JW, Kim JK, Lee JG. An analysis on job satisfaction factors of government officers in technical posts. J Social Sci 2012;38:71-98.

27. Kim YH, Yang YO. A Study for perception and preference on flexible working pattern of nurses in hospital. J Korean Acad Nurs Adm 2007;13:167-175.
28.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status of oral health and dental services in disabled people.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2003:1-136.